

## 북한 갑산파 연구

### 박금철과 구성원 관계를 중심으로

조우찬(북한대학원대학교)

해방 이후, 북한에는 여러 파벌이 존재했다. 김일성을 제1인자로 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북한 정권 초기에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세력인 만주파가 독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여러 정파가 북한 정권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에는 만주파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과 함께 항일활동을 전개했던 연안파, 고려인으로 이루어진 소련파, 일제 시기 북한 각 지역에서 활동한 여러 인물들이 망라된 국내파, 그리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세력이 있었다. 김일성은 앞에 설명한 파벌들에 대해서 연안파, 이르꾸츠크파, 오기섭파, 박헌영파로 지칭하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정파들은 1950년대를 거치며 전부 숙청되었다. 박금철로 대표되는 갑산파는 1950년대에 반종파투쟁에 앞장섰고 만주파와 구분되는 새로운 김일성 직계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유일성에 대해서 김일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다가 1967년에 전격적으로 제거되었다. 박금철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갑산파로 지칭하지 않고 반당반혁명적인 수정주의자로 규정하였다. 갑산파는 다른 파벌과 비교해 볼 때, 성격과 특징이 매우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갑산파라는 명칭의 유래와 더불어 그 범주에 포함되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갑산파 인물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은 박금철과 갑산파 구성원의 긴밀한 관계를 간과하였던 것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었다. 갑산파는 1950년대 반종파투쟁의 공로자이자 수혜자였다. 갑산파는 다른 파벌과 달리 대표적 인물인 박금철의 리더십이 확고하였다. 또한, 만주파처럼 하나의 정파라는 유대감과 결속력이 매우 높았던

정치세력이었다.

주제어: 갑산파, 박금철, 조국광복회, 한인민족해방동맹, 북한의 파벌

## 1. 서론

북한의 파벌을 거론할 때, 대체적으로 최창익, 김두봉, 박일우 등의 연안파와 허가이, 박창옥 등의 소련파에 이어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세력인 만주파를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서 활동한 오기섭, 주녕하 등 국내파와 남부에 거점을 두었던 박헌영의 남로당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파벌들은 해방 후에 북한 정권이 성립되었을 당시에 이미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초기 북한 정권에서 나타난 균점적인 권력 구조의 틀이 붕괴되면서 점차 권력의 중심축이 김일성에게 더욱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앞에서 열거한 정파들이 1950년대에 숙청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에서 이들은 일정 부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었고 이에 대해서 반당종파적 행위로 몰아가는 성토와 비판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처럼 이들은 반당종파적 정치세력으로 평가받고 제거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에 해악을 끼친 파벌들로 규정되며 북한 문헌에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67년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갑산파의 경우는 앞의 정파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본 연구는 갑산파라는 정파가 북한의 다른 파벌과 어떻게 다르며 이들을 갑산파로 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였다. 갑산파는 하나의 정파라는 측면에서 볼 때, 파벌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리더십(leadership)과 구성원의 팔로워십(followership)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벌의 유대감과 일체감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한 파벌들과 대조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갑산파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만주파 등 타 파벌과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증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1950년대에 북한의 파벌들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박금철 등의 갑산파는 새로운 김일성 직계세력으로 부상하였고 1960년대에 초에 등장한 김일성 단일지배체제 구축의 공로자이자 수혜자였다. 이와 같이 다른 파벌들의 성격과 크게 대비되는 갑산파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규정하였을까? 분명한 것은 박금철을 위시한 세력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파벌로 간주하거나 거론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갑산파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북한 연구자들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금철이 정치적으로 급부상하자 그 배경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갑산파 등장의 배경은 1930년대 중반의 조국광복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항일 빨치산세력과 구별되는 새로운 김일성 직계세력의 출현과 그들의 활동은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 권력구조에 일찌감치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1967년에 진행된 박금철, 리효순, 리송운, 김왈룡, 허학송, 허석선 등에 대한 전격적인 숙청은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큰 사건이었다. 그리고 박금철과 그를 추종한 인물들에 대해서 일부 국내외 학자들이 그들의 활동 지역이었던 함남 갑산의 지명을 따서 갑산파로 명명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갑산파의 범주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갑산파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갑산파의 주요 인물은 위에 열거한 인물 외에도 1960년대 중반에 갑산파에 동조했던 인물이나 함남 갑산 출신 인물 혹은 관련된 인물, 소련에 유학했던 유학과 인물들까지 망라하여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기준이 편의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박금철과의 연계가 불분명하거나 갑산파 숙청 이후에도 정치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떠나갔던 인물도 있었다. 이처럼 갑산파 인물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된 것은 확실한 확인 없이 조국광복회 활동을 했던 인물에 대해서 갑산파 구성원으로 파악하거나 단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갑산파가 다른 정파처럼 처음부터 명백하게 파벌로 인식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갑산파의 범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두고 평가하지 않았던 데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박금철과 박달이 이끌었던 한민민족해방동맹은 조국광복회 산하의 국내 하부조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신규 조직원에 대한 포섭과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박금철이 직접 영입하여 함께 활동했거나 하부조직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던 인물들인 리송운, 김알룡, 허학송 등은 박금철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민민족해방동맹 조직원들 중에서도 박금철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인물들이 향후 갑산파의 핵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갑산에서 박금철과 함께 활동한 후에 만주 장백에서 조국광복회 지부를 구축했던 리제순의 형인 리효순, 그리고 장백에서 함남 원산에 파견되어 활동한 허석선 역시 박금철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갑산파의 핵심적인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갑산파의 범주에 어떠한 인물들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박금철과 갑산파

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폐쇄적인 조직 특성을 지닌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연령, 직업, 거주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갑산파와 북한 파벌의 특징

### 1) 갑산파의 등장과 북한 파벌의 명칭

박금철을 비롯하여 리송운, 김왈룡, 허학송 등 갑산파 핵심 인물들은 해방 이전인 1930년대 중반에 함남 갑산에서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었다. 당시 갑산공작위원회를 이끈 박달과 박금철은 한만 국경지대의 무장투쟁세력과 연대를 꾀하여 항일운동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계획은 1930년대 중반에 코민테른의 새로운 지침이 결정되면서 한만 국경지대의 무장투쟁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다. 그 이전인 1930년대 초에 만주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의 1국 1당 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 만주성위 산하에서 활동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해야 하였다.<sup>1)</sup> 이 무렵에 항일유격대에 대해서 일제 토벌대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만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만든 친일반공단체인 민생단이 결성되었다. 민생단은 곧 해체되었으나 민생단의 첩자가 공산당과 유격대 조직에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정

---

1)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科, “在滿朝鮮人の概況,” 『高等外事月報』, 제2호(1939), 66쪽.

하에 접화된 반민생단투쟁의 여파는 한인 공산주의운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반민생단투쟁이 끝난 후,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대거 숙청되어 간부급 한인들의 수는 크게 급감하였다.<sup>2)</sup> 이러한 상황 속에 1935년 7월에 코민테른의 새로운 지침인 인민전선 구축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한인이 주도하는 반파시즘 항일인민전선 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1936년 5월에 동북항일연군의 외곽단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었다. 조국광복회의 결성 목적은 조선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여러 하부조직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sup>3)</sup>

1930년대 중반부터 함남 갑산에서 위장활동을 전개해온 갑산공작위원회<sup>4)</sup>는 1936년 12월에 리제순의 주선으로 박달과 박금철이 김일성과 회합한 후에 조국광복회에 참여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1937년 초에 한인민족해방동맹으로 개칭하고 갑산군 운흥면과 보천면에 여러 하부조직들을 결성해나갔다.<sup>5)</sup> 한인민족해방동맹에서 박달은 정치부 겸 정의부 책임을 맡았고 박금철은 출판부 겸 경제부 책임을 담당하였다. 또한, 갑산군 운흥면 신북리 이복은 박달이 담당하고 갑산군 운흥면 오산리 이복은 박금철이 전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부로부

- 
- 2) 김성호, “민생단사건과 만주 조선인 빨치산들,” 『역사비평』, 제51호(2000), 115~116, 125쪽.
  - 3) 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二), 抗日ノバルチザン』(東京: みすず書房, 1976), 320쪽.
  - 4) 일제는 갑산공작위원회에 대해서 『思想彙報』 제14호에 언급된 대로 처음에는 1936년 12월에 조직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나중에는 그보다 빠른 1936년 3월부터 갑산군 운흥면에서 박달과 박금철이 비밀결사인 갑산공작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咸鏡南道國境地帶思想淨化工作概況,” 『思想彙報』, 제20호(1939), 9쪽.
  - 5) “1937年(昭和12年度)における朝鮮内思想運動の概況,” 『思想彙報』, 제14호(1938), 55~56쪽.

(父老部) 책임은 심창식이었고 청년부와 부녀부 책임은 각각 리용술과 김성연이었다. 박금철이 담당하는 출판부원에는 심창선과 허창국이 한인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된 후에 새로 가입하였다.<sup>6)</sup>

창립한 후부터 1년 넘게 활동했던 조국광복회는 한인민족해방동맹을 포함한 모든 산하 조직이 해산사건으로 와해되었다.<sup>7)</sup> 한편,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붕괴된 조국광복회는 동북항일연군 제3군 중심으로 하여 재만공산당의 외곽단체로서 남만과 동만 지역에 조직 재건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 일환으로 “조선민족광복회주비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으나 조직 재건에 이르지지는 못했다.<sup>8)</sup> 국내에서의 조직 재건운동은 동북항일연군 김평의 지령을 받은 박달 등 3명의 조직원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에 입당하는 한편, 세력을 규합하기로 하고 철도와 통신 교란, 군수공장 파괴, 동맹파업 등 후방교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박달의 체포로 실행되지는 않았다.<sup>9)</sup> 일제에 체포되기 전인 1938년 8월에 장백현 제7도구의 오지에서 동북항일연군 제2군 6사 정치위원 김평과 회합하였던 인물은 박달 이외에 리경봉과 김철억이었다. 그리고 이미 세 명 모두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상태였고 중국공산당의 하부조직을 결성하여 항일공산주의운동을 펼칠 계획이었다.<sup>10)</sup>

---

6)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二), 抗日バルチザン』, 285~286쪽.

7) 일제는 1937년 가을 10월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대대적인 검거에 돌입하여 조국광복회 관련 인물들을 색출하기 시작하였다. 1937년 10월부터 시작된 1차 검거에 이어 1938년 7월부터 재개된 2차 검거에 돌입한 일제는 핵심 인물인 박달을 마지막으로 체포하였다. 위의 책, 321쪽.

8)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科, “國境警備の狀況,” 『高等外事月報』, 제4호(1939), 46쪽.

9) “1938年(昭和13年度)における朝鮮内思想運動の概況,” 『思想彙報』, 제18호(1939), 21쪽.

10) 金正柱, 『惠山事件判決書: 韓國統治史料 第6卷』(東京: 韓國史料研究所, 1970), 601쪽.

한인민족해방동맹을 이끌었던 박달과 박금철은 혜산사건으로 체포되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은 6명으로 박달을 제외한 권영벽, 리동석, 지태환, 리동걸, 서인홍은 조국광복회 장백지부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서인홍을 제외한 앞의 4명은 1945년 3월에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였다.<sup>11)</sup> 한편, 사형을 선고받은 박달은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고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은 4명으로 박금철 외에 한인민족해방동맹 핵심 간부인 김철억과 리경봉이 포함되었다.

리송운, 김왈룡, 허학송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활동에서 박금철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데 이어, 향후 갑산파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리송운과 김왈룡은 10년형을 선고받았고 허학송은 8년형을 선고받았다.<sup>12)</sup> 사형과 무기징역 다음으로 4명에게 15년형이 선고되었다.<sup>13)</sup> 이 가운데 한인민족해방동맹 부로부(父老部) 책임을 맡았던 심창식이 포함되었다.<sup>14)</sup> 심창식은 기관지 『화전민』을 통한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갑산군 보천면 신흥리에서 자신을 총책임으로

- 11) “백절불굴의 열렬한 공산주의자들: 리제순, 권영벽, 리동걸, 지태환 동지들의 서거 19주년에 제하여,” 『천리마』, 제3호(1964), 52쪽.
- 12) 권영벽은 권창욱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였다. 리동석은 박달과 박금철을 김일성과 연결했던 리제순의 다른 이름이다. 이 두 사람은 조국광복회 장백지부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金正柱, 『惠山事件判決書: 韓國統治史料 第6卷』, 580~581쪽.
- 13) 조국광복회 활동과 관련하여 2년형에서 사형까지 선고되었는데 이 가운데 한인민족해방동맹 관련자의 수가 장백 지부와 다른 하부조직 관련자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13년형은 여섯 명으로 최필호, 김영균, 차인찬, 김억준, 안기천, 리남진 등 전부 한인민족해방동맹 관련자였고 12년형은 아홉 명으로 김사남, 류이암, 리금녀, 리정언, 리후진, 박삼봉, 박남순, 안용준, 허철 등 모두 한인민족해방동맹 관련자였다. 위의 책, 581~582쪽.
- 14)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二), 抗日パルチザン』, 286쪽.

하고 류홍구와 최병윤을 각각 서무와 재무 책임자로 한 반일정우회를 조직하였다.<sup>15)</sup> 그리고 박달의 지도 아래 갑산군 보천면 보흥리 백채동에 상촌 한인회가 결성되도록 지도하였다. 이 조직의 책임자는 리민수였고 김만경, 리신희 등이 참여하였다.<sup>16)</sup> 이와 같이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핵심 간부들 역시 하부조직 구축에 나섰고 조직원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에 직접 참여하였다.

해방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온 박달과 박금철의 행보는 북한으로 갔다는 점에서 동일했지만 정치 참여의 경우에는 달랐다. 박달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요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달과 김일성의 각별한 관계는 갑산과의 태동과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산사건과 관련하여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박달과 박금철은 함흥형무소에서 이감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에 해방을 맞았다. 박금철은 월북하여 함북으로 갔다.<sup>17)</sup> 갑산과 연계가 있는 함북 길주는 박달과 리제순이 갑산으로 오기 전에 활동하던 곳이었고 김월룡도 연고가 있었다. 리송운과 허학송은 함북 길주군에서 분리된 성진군에 연고가 있었다. 갑산 토박이인 박금철은 좌익 노조운동 세력이 강한 함남 평지대의 대도시가 아니라 갑산과 인물들의 연고지역이면서 갑산과 같이 적색농민조합 운동이 전개된 함북으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이 되자 전국 각 지역에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인민위원회 활동의 향배는 남북한에서 차이가 있었다.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의 권위가 인정되고 합법화되었다. 반면에, 미군정은 어떠한

---

15) 金正柱, 『惠山事件判決書: 韓國統治史料 第6卷』, 640~641쪽.

16) 위의 책, 646~647쪽.

17)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서울: 선인, 2003), 99쪽.

기존 정치 세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기조로 삼았다. 또한, 인민위원회 내에서 좌익세력의 주도권을 우려하여 인민위원회를 불법화하였다.<sup>18)</sup> 북한 지역의 도(道)인민위원회의 결성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함남과 함북은 좌익을 중심으로 하여 도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함남에서는 1945년 10월 15일에 함남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전투지역이었던 함북에서는 동년 10월 26일에 함북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sup>19)</sup>

함경남도에서는 도청소재지인 함흥과 최대 공업도시 원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인민위원회가 자생적으로 구성되었고 좌익 노조운동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한편, 공업도시인 함흥의 경우에는 8월 16일에 정치범과 경제범이 석방되었다. 그리고 노조운동을 했던 노동자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함북 나선과 청진에서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민위원회 조직이 결성되었다. 함북 명천과 같이 적색농민조합 운동이 활발했던 곳에서는 청년동맹, 소년회, 농조운동을 했던 사회주의운동 세력이 인민위원회를 주도하였다.<sup>20)</sup> 한편,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이 강하고 지주 세력의 힘이

---

18) Charles Armstrong,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 ~ 1950*(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p. 48 ~ 49.

19) 황해도에서는 우익이 우세한 황해도인민정치위원회가 1945년 9월 2일에 결성되었고 9월 13일에는 좌익 중심의 황해도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도인민위원회 결성이 가장 빨랐던 평남에서는 같은 해 8월 27일에 좌우 연합의 성격이 띤 평남인민정치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평북에서도 좌우 연합의 평북임시인민위원회가 같은 해 8월 31일에 결성되었다. 북한 지역에 속한 강원도에서는 같은 해 10월 18일에 철원에서 강원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김광운,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과 간부 층원: 1945.8 ~ 1947.3”(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44쪽.

20) 1945년 8월 22일에 소련군이 진주한 원산에서는 30여 명이 참가하여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산하에 자치부, 교육부, 보건부, 공업부, 철도와 해상수송

켰던 평안남북도의 경우에는 조만식과 리유필 등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강하였고 대체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 평양에서는 현준혁과 김용범, 박정애, 리주연 등의 공산주의자들과 우익세력인 건준이 연합하여 평남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조만식이 위원장에 올랐다.<sup>21)</sup>

한편, 김일성은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온 박달이 치료를 위해서 서울에서 1년 정도 머무를 때부터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 그의 부인인 현금성과 가족들에게까지 관심을 보였으며 함께 평양으로 올 수 있도록 하였다.<sup>22)</sup> 부인의 간호를 받던 박달이 척수염 진단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을 서울로 보내 박달과 그 가족들을 평양으로 이송시켰던 것이다. 김일성의 박달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매우 세심한 편이었다. 우수한 전담 의사들에게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등 모진 고문에 시달렸던 박달의 치료를 전담하게 하고 각별한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였다.<sup>23)</sup>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달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공산주의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다. 남로당에서 활동하게 되는 리현상과 김삼룡 등과 서대문형무소에서 교류가 있었다. 평양으로 이동하게 된 박달은 김일성에게 보내는 김삼룡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sup>24)</sup>

---

부, 통신부 등 여러 부서를 두었고 8월 말에 200여 명으로 구성된 지방인민경찰은 소련군에게 무기를 지급받기도 했다.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 역활”(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97~98, 100, 107쪽.

21) 위의 글, 83, 96~97쪽.

22)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354쪽.

23)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87~288쪽.

24)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354쪽.

해방 이후부터 1948년 3월에 열린 제2차 당대회까지 약 2년 반 동안에 걸친 박금철의 초기 정치활동과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서 당 간부로 활동했던 박갑동은 박헌영이 박금철을 발탁했다고 말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평양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던 박금철은 함남과 인접한 국경 인근의 평북으로 갔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해방 당시에는 평북에 속했다가 현재는 자강도에 속해 있는 강계시로 간 박금철이 강계시당에서 조직부장을 했다고 한다.<sup>25)</sup> 명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박금철은 평양에서 요양을 하던 박달과 교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제2차 당대회에서 리송운과 함께 중앙위원으로 발탁되는 데에는 박달과 김일성의 각별한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47년 2월 17일에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가 구성되었고 김두봉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행정부 기능을 수행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승인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각각 김일성과 김책을 선출하였고 김일성은 정부의 수반이 되었다. 1948년 북한의 권력구조는 제1인자에 김일성, 제2인자는 박헌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sup>26)</sup> 1948년 8월 25일에는 북한 정부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한 데 이어 9월 2일에는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었다. 허헌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선출

25)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 박헌영 전집』, 제8권(서울: 역사비평사, 2004), 840쪽.

26) 1945년 12월까지 북한을 대표할 인물에 대해서 소련 지도부는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1946년 2월 8일에 김일성은 북한 최초의 중앙 권력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며 명실상부한 북한의 1인자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기광서, “해방 후 김일성의 부상과 집권과정,” 『역사와 현실』, 제48호(2003), 269~270쪽.

되었고 김두봉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sup>27)</sup>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을 구성하면서 수상에 김일성을 선출하였고 부수상 겸 외상에는 박헌영을 선출하였다. 초대 내각에서 박헌영의 측근인 최용달, 리강국 등은 박헌영의 강력한 천거에도 불구하고 입각하지 못한 것은 김일성의 박헌영 세력에 대한 견제에 따른 것이었다.<sup>28)</sup>

1948년 3월에 열린 제2차 당대회에서 박금철과 리송운이 당중앙위 중앙위원으로 선출되고 리효순은 당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진출하였다.<sup>29)</sup>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는 핵심 기구의 하나로 정치위원회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의 정의원의 수는 1946년에 열린 북로당 창립대회인 제1차 당대회에서 43명이었고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1961년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에서는 85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되었다.<sup>30)</sup> 당시 북한에서는 국내파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 출신들까지 다양한 정파가 활동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 상무위원의 인적 구성이 각 정파별로 고르게 되어 있다는 점은 권력이 한 정파에 온전하게 집중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의식해야 할 세력들이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형태적으로는 정파들 간에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구조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구성의 분포와 균형은 점차 깨지

---

27) 심지연, 『허헌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4), 200~201쪽.

28) 백학순, “김일성의 권력 경쟁의 승리와 당·국가 건설,” 『북한의 정치 1』(서울: 경인문화사, 2006), 216쪽.

29)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601쪽.

30)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941~946쪽.

게 되었고 그 빈틈을 만주파를 비롯하여 갑산파와 유학파가 차지하는 구도로 전개되어나갔다. 각 정파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전쟁의 책임 문제였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전쟁의 책임 소재 문제로 심한 불화가 있었다. 1953년 2월 7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에게 원수의 칭호를 수여하였다. 김일성이 전쟁 책임 문제에서 박헌영에게 승리한 것이었다.<sup>31)</sup> 한편, 강상호의 증언에 의하면 박일우 내무상, 장시우 상업상, 박훈일 당중앙위 농업부장 등은 전쟁 책임에 대해 김일성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sup>32)</sup> 김일성은 반대파를 제압해나갔고 박헌영에 대한 사형 집행과 8월 종파사건 등을 거치며 북한의 권력구조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제2차 당대회는 갑산파가 중앙 정치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자리였으나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리송운과 박금철이 67명의 당 중앙위원 명단의 최하위 순번에 오르면서 북한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중앙위원 서열을 보면 리송운이 박금철보다 한 단계 위 서열인 66위였고 박금철은 맨 끝 순위인 67위에 이름을 올렸다.<sup>33)</sup> 그리고 청진시 당부위원장이었던 리효순은 20명의 중앙위 후보위원에 하양천, 남일 등과 함께 서열 17위로 선출되었다.<sup>34)</sup> 이로써 박금철, 리송운, 리효순 등은 북한 중앙정치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박달은 건강문제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었고 박금철을 중심으로 하여 갑산파가 형성되었다. 함경남도 갑산 출신으로 한인민족해방동맹 활

31) 서동만, 『북조선 연구』(서울: 창비, 2010), 213~214쪽.

32) 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7~28쪽.

3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127쪽.

34)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602쪽.

동을 하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박금철, 리송운, 김왈룡, 허학송, 그리고 장백과 원산에서 조국광복회 활동을 한 허석선과 리제순의 형인 리효순이 해방 후에 갑산파의 주축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노선 차이에 따른 대립 혹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권력투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사회주의국가들의 종주국인 소련과 마오쩌둥(毛澤東) 통치하의 중국<sup>35)</sup>에서도 파벌은 존재하였다. 한편, 파벌 혹은 종파라는 개념이 지닌 부정적인 요소가 현재에도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sup>36)</sup>은 중앙의 시각에서 바라본 파벌의 부정적인 기능인 분열과 혼란에 주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벌(派閥, faction)에 대한 기준과 용어는 학자에 따라서 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갑산파’에 대한 명칭과 분류도 현재까지 하나로 통일되어 사용되어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북한의 파벌 가운데 연안파를 제외하면 저마다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다양한 명칭들이 있다.<sup>37)</sup> 갑산파가 만주파와 함께 김일성 직계라는 명칭으로 불렸다는 점은 김일성 친위세력의 일원이었던 갑산파의 특수한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전에는 갑산파라는 명칭이 현재 사용되는 ‘갑산파’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시

---

35)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권력이 약화된 1950년대 말부터 류사오치(劉少奇)와의 권력 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1955년에 마오쩌둥이 소련식 경제발전 모델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중국식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려고 하자 류사오치와 덩샤오핑(鄧小平)은 제1차 5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공업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석찬, “중국의 파벌투쟁과 외교정책노선의 변화”(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36~137쪽.

36) 백준기,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변동과 권력재편,”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1999), 15쪽.

37)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북한 파벌의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전원근, 『조선노동당』(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30~32쪽.

말해서 국내외 일부 학자들을 비롯해 일부 연구에서는 현재의 만주파로 통용되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세력을 의미하는 용어으로써 ‘갑산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학자에 따라서 북한의 파벌에 대해서 저마다 달리 구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서대숙은 북한의 파벌에 대해서 주요 인물을 설명하면서 박정애, 현준혁, 오기섭 등의 국내파와 김두봉과 최창익 등의 연안파, 그리고 소련파와 빨치산파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서대숙은 제2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43명의 중앙위원회에 대해서 4개 정파로 분류하였다.<sup>38)</sup> 한편, 백학순은 국내파, 만주파(갑산파), 소련파(러시아파), 연안파에 이어 추가적으로 박헌영 일파를 추가하였다.<sup>39)</sup> 한편, 국내파에 대해서 활동 지역인 이남파 이북의 구분 없이 하나의 정파로 구분한 경우도 있었다. 국내파에 대해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으로 구분한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는 박헌영을 대표적인 국내파 인물로 간주하고 국내파를 하나의 파벌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연안파, 소련파, 빨치산파로 분류하였다.<sup>40)</sup>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만주파, 갑산파라는 명칭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을 기준으로 명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활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명명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이었고 파벌의 명칭이 파벌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연대감을 상징하거나 파벌의 결속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항일유격대 활동을 하며 생존했던 만주파의

---

38) Dae-Sook Suh,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78~83.

39) Hak-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Ph. D. dissertation, Pennsylvania University, 1993), pp. 98~99.

40) Andrei R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pp. 78~80.

강한 일체감은 타 정파에 비해 매우 높았다. 또한, 폐쇄적인 조직원 충원을 특징으로 했던 한인민족해방동맹에 기원을 두는 갑산파의 경우에도 다른 파벌에 비해서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었다.

갑산파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명칭으로 사용되어온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국내 학계에서는 갑산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갑산을 연고로 하여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을 하였고 박금철을 중심으로 하여 김일성 직계세력이었다가 1967년에 숙청된 인물들을 갑산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와다 하루키와 서동만 등은 파벌의 특징과 성격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갑산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sup>41)</sup> 국내에서 북한의 파벌에 관한 명칭에 대해서 정리된 용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연안파와 소련파, 국내파, 만주파라는 용어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파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언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두봉과 최창익 등에 대해서 독립동맹계열, 박창옥 등은 소련계열, 김일성에 대해서는 동북항일연군 계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sup>42)</sup>

갑산파는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갑산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김일성과 연계된 조국광복회 활동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들에 대해서 국내파 공산주의자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김일성과 연관이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갑산파를 만주파의 일원으로 간주하여 만주파의 범주

---

41) 국내 일부 연구자들과 하루키는 갑산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루키는 결속과 규율이 약한 파벌을 파(派)가 아닌 계(係)로 지칭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 만주파를 제외한 북한의 다른 파벌에 대해서는 국내계, 연안계 소련계, 갑산계로 지칭하고 있다. 한편, 하루키는 소련 유학을 갔다온 인물들에 대해서 유학파라고 일컫고 있다.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갑산파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들 간의 결속력은 만주파에 못지않았다고 할 수 있다.

42) 백준기, “소련의 한반도 안정화 정책의 기원과 전개,” 서대숙 편,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1), 197쪽.

에 포함하여 분류하기도 하였다.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은 전후 복구 기간인 1954년 무렵부터 박금철에 대해서 박정애, 최용건, 김일과 함께 김일성 직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이 당시부터 박금철은 서열 4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소련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박정애는 남편인 김용범과 함께 북한 정권 수립 이전부터 김일성에게 협력적이었다.<sup>43)</sup> 소련의 첩보 요원인 박정애는 이르쿠츠크를 거쳐 모스크바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지하활동을 위해서 김용범과 위장결혼을 하고 국내로 파견되었다.<sup>44)</sup>

한편, 북한에서는 종파에 대해서 비판할 때, 특정한 파벌의 명칭을 거론하는 경우에 비해서 대체로 실명을 거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최창익이 가장 많이 실명으로 비판을 받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 물론 파벌의 명칭이 직접 거론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현영파, 오기섭파, 연안파, ‘이르꾸츠크파’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sup>45)</sup> 김일성이 파벌에 대해서 명칭을 직접 거론하기도 하였다. 1960년 8월 25일에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제109군 부대에서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비판하며 정파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였다.

이르꾸츠크파들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거나 자기들의 의견을 반대하면 그것을 마치 쏘련을 반대하는 것으로 악선전하였습니다.<sup>46)</sup>

---

43) 위의 책, 722쪽.

44)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김광린 옮김(서울: 오름, 1999), 137쪽.

45) 김일성,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80쪽.

46)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 학교이다.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군인들과

위의 발언은 김일성이 당 중앙위의 1950년대에 발생했던 박창옥과 박영빈의 교조적 행태를 포함하여 총정치국에 있던 최종학이 군대내 정치사업을 잘못하여 종파분자가 책동하였다고 비판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파벌의 존재와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명칭과 이름을 거명하며 비판을 가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당내 종파주의적 요소를 비판하면서 1925년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이 엠엘파, 화요파, 북총회 등 파벌 간의 경쟁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한 바 있었다.<sup>47)</sup> 그리고 김일성은 허가이와 박일우에 대해서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허가이가 소련에서 온 대표인물이라고 자처하였다고 비난한 데 이어 박일우 역시 중국에서 활동한 대표인물로 자처하였고 방호산을 포섭하려고 하였다고 비판하였다.<sup>48)</sup> 당시 북한에서는 종파적 폐해를 강조하면서 지방주의와 가족주의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1920년대 종파 집단으로 ‘이르꾸쓰크파’, ‘상해파’, ‘서울파’, ‘화요파’, ‘북풍회파’, ‘일월회파’, ‘엠엘파’, ‘서상파’ 등의 폐해는 물론 해방 직후, 함남의 오기섭, 원산의 리주하, 함북의 장순명, 평남의 장시우 등이 지방 할거주의를 조장하면서 종파적 책동을 전개되었다고 비난하고 여기에는 지방주의와 가족주의가 관련되었다는 것이다.<sup>49)</sup>

박금철은 1950년대 반종파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반김일성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나갔다. 8월 종파사건 주요 관련자에

---

한 담화(1960년 8월 25일), 『김일성저작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94쪽.

47)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현 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김일성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264~265쪽.

48) 위의 글, 267~268쪽.

49) 김시중, “지방주의와 가족주의의 해독성,” 『근로자』, 제4호(1958), 48쪽.

대해서 박금철은 당의 단결을 해친 종파행위로 규정하였다. 1958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국립예술극장에서 열린 제1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박금철은 당에서 발생한 종파적 책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박헌영, 리승엽 도당을 비롯하여 박일우, 허가이 등 일련의 종파분자, 개인 영웅주의자들은 당이 장성 강화되는 행정에서 더 이상 남아 베길 자리를 차지 못하고 적발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이 심각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당내에는 최창익, 박창옥 등의 반당종파가 또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sup>50)</sup>

북한에서는 파벌의 명칭을 언급하며 비난을 가하기도 하였으나 특정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앞에서처럼 공식석상에서 박헌영, 리승엽, 박일우, 허가이, 최창익, 박창옥 등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반김일성 세력들에게 공개적으로 반당종파적 행위로 몰아세운 비난은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북한에서는 종파를 극복하고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해방 전부터 있어온 종파분자들은 분열은 1924년에 화요파, 서상파의 대립으로 극에 달했고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을 파괴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엠엘파, 화요파, 서상파의 극심한 분열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일제에 협력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sup>51)</sup>

---

50) 박금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보고,” 『조선로동당 제1차 당대표자회 회의록』(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8), 302쪽.

51) 김효선, “종파 여독의 철저한 근절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업,” 『근로자』,

## 2) 북한 파벌의 유대감과 결속력

연안파는 해방 후에 북한에 입북한 정치세력 중에 수적으로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전원이 중국공산당 당원이었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 활동과 전투 경험이 풍부한 연안파를 구성하는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입국은 지연되었다. 연안파는 1945년 11월 말경에 입북하였다. 무장세력인 조선의용군은 총사령관인 무정을 포함한 간부 일부만 입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미약한 상황이었다. 조선독립동맹은 시국강령을 발표하며 정치적 활동을 확대해나갔다. 무정을 비롯하여 김창만, 허정숙, 리상조, 박일우, 윤공흠, 고봉기, 서희, 랑계 등이 북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고 김두봉, 최창익, 한빈 등은 조선신민당을 창당하였다.<sup>52)</sup>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북한인민군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은 포병사령관과 군단장을 지낸 무정을 비롯하여 박일우 연합사 부정치위원, 김창덕 군단장, 방호산 군단장, 장평산 군단장 등이 있었다. 이들 외에도 북한인민군에서 사단장, 참모장, 여단장, 연대장 등을 역임하고 전쟁에 참전한 연안파 인물은 매우 많았다.<sup>53)</sup>

소련 당국의 계획에 의해서 북한으로 파견된 소련파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들이 많았으나 다양한 지역에서 선발되었고 상당수가 교사와 초급당의 당원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략 200여 명 정도였고 제1진부터 제5진까지 시기별로 몇 단계에 걸쳐 북한에 도

---

제8호(1958), 24~25쪽.

52) 정병일, “북한의 초기국가건설과 연안파 역할: 역사의 재조명”(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82~83쪽.

53) 위의 글, 172~176쪽.

착하였다.<sup>54)</sup> 대표적인 인물은 허가이를 비롯하여 박의완, 남일 등이  
 였다.<sup>55)</sup> 소련과의 주요 인물들 간에는 소련에서 함께 활동했던 적이  
 없었다. 소련을 모국으로 삼고 있는 고려인이라는 강력한 공통점이  
 있었으나 이들을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족하였고 상호 불신과 반목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만큼 하나의  
 정파라는 유대감과 결속력을 지탱할만한 요인이 없었고 실무적 성격  
 이 강한 집단이었다.

연안파의 인물들은 항일운동을 하면서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긴밀  
 한 관계를 맺었다. 이 때문에, 무정과 박일우 등은 김일성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소련파는 소련 당국의 지시를 수행하는 실무적 집단  
 이었고 모국인 소련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강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

54) 시인인 조기천과 전동혁, 극작가 림하와 소설가 김세일과 같은 문인들도 있었  
 다. 또한, 박일이나 이문일처럼 언론과 교육 분야의 몇몇 인물들도 있었다.  
 1945년 8월에 입북한 제1진에는 앞서 언급한 문인들과 군인들로 구성되었다.  
 같은 해 11월의 제2진은 대부분 사범대 출신으로 당조직부장을 역임한 박영빈  
 등 53명이었다. 같은 해 12월의 제3진에는 허가이(내각 부수상), 박의완(내각  
 부수상), 김승화(건설상), 기석복(당선전부장, 노동신문 주필) 등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었다. 1946년 10월에 입북한 제4진은 북한이 소련 정부에 공식 요청하여  
 초청한 36명의 고려인 기술진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는 남일(군총참모장,  
 외무상, 내각 부수상), 방학세(사회안전상, 최고재판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일, “북한정치에 참여한 소련파 한인들,” 『동국역사교육』, 제5집(1997), 5  
 9~61쪽.

55) 연해주 출신인 허가이는 소련 타슈켄트에서 당간부로 활동하다가 입북하여  
 소련 모델에 입각한 당조직 구축을 전담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박  
 창옥은 하바로프스크사범학교 출신으로 내각부수상과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을 역임하였다. 박의완은 카자흐의 크질오르다 출신으로 중학교 교장을 거쳐  
 입국한 후에는 교통상, 철도경비사령관, 내각부수상과 경공업상을 지냈다. 남  
 일은 함북 출신으로 소련으로 이주한 후에 톱스크화학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았던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와서 휴전회담의 대표와 외무상을  
 거쳤다. 이례적으로 남일은 숙청되지 않고 1967년에 부수상에 임명되어 활동  
 하였다. 위의 글, 62~64쪽.

갑산파가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일체감이 매우 높았고 결속력이 강했다는 점은 연안파와 소련파, 국내파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파는 이념적 투쟁수단과 투쟁지역, 정치군사교육기관과 같은 지연과 학연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인맥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파의 일체감은 높지 않았다.<sup>56)</sup> 연안파의 무정과 최창익의 노골적인 반목과 대립은 중국에서 항일활동을 하던 시기부터 불거진 것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마오쩌둥에 의해 1942년부터 사상적 단결을 위해 전개된 정풍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 정권 수립 후에도 이들의 대립은 계속해서 이어졌다.<sup>57)</sup> 소련파의 허가이와 박창옥은 대립적 관계였는데 박창옥은 허가이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련에서 사범대 출신이거나 교편을 잡았던 소련파 박창옥, 박의완, 박영빈 등은 입북하기 전에 소련에서 청년조직 등에서 활동하며 유망한 인물로 평가받았던 허가이에 대해서 학력과 품행 등의 이유로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편, 연안파는 중국 공산주의 자들과 함께 내륙의 외진 지역인 산시성(陝西省)으로 이동하기 전에 상하이에서 혁명 경력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팔로군과 신4군에서 활동한 인물들도 있었다. 소련파와 연안파의 정파적 유대감과 결속력은 매우 약했다. 정파 내 갈등과 상호불신은 잘 알려져 있었다. 한 예로 소련파 허가이의 자살을 알게 되었을 때, 박창옥은 어떠한 유감도 표현하지 않았다.<sup>58)</sup>

---

56) 정병일, “북한의 초기국가건설과 연안파 역할: 역사의 재조명,” 205~206쪽.

57) 위의 글, 207~208쪽.

58) James F. Person,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p. 10.

이에 비해서 갑산파는 구성원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설사 정치적 이해타산과 이해관계가 정파를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고 추정해보더라도 최소한 타 정파와 같은 정파의 지도적 인물들 간의 대립과 반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북한에서 발생한 여러 숙청의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가 갑산파로 폐쇄적인 조직 특성을 지닌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1930년대 중반에 형성된 박금철과 갑산파 구성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고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다. 다른 파벌처럼 유대감이 희박하거나 분열된 행동은 볼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만주파 역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여 강한 결집력을 나타냈다. 연안파의 무정과 최창익의 대립이나 소련파의 허가이와 박창옥의 반목은 파벌의 구심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내파는 오기섭과 현준혁 등 명망가들의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할거적인 경향이 있었던 데다가 통합된 정파의 성격을 갖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내파의 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평양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현준혁은 소련군 사령부의 공개적인 비판을 받는 등 소련 군정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암살되었다. 오기섭은 노동자의 권익 확대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김일성의 견제를 받게 되었다. 소련과 유착된 박정애 등은 이미 김일성과 밀착해 있었다. 파벌의 명칭은 단지 활동 지역을 근거로 명명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파의 유대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국내파는 파벌로서의 존재가 실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편의적인 분류에 따라 명명된 국내파라는 호칭은 이들을 하나의 정파로 포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 3. 갑산파 구성원 간의 관계

#### 1)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조직 특성과 영향

한인민족해방동맹은 국내에 결성된 조국광복회 여러 조직 가운데 규모와 활동에 있어서 장백지부와 함께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한 조직이었다. 박금철과 갑산파 핵심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는 193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형성된 박금철과 핵심 구성원 간의 특수한 관계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조직 특성이 후일 갑산파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갑산공작위원회와 그 후신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은 과시즘에 반대하는 항일인민전선에 참여하였으나 기존의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조직원의 포섭 역시 대면접촉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박달과 박금철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가 신규 조직원 확충에 나섰다. 항일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부농과 천도교와도 연대했던 조국광복회와 달리,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사상적으로 투철한 빈농과 노동자 계층의 인물을 포섭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조직원 중에는 형제 혹은 사촌관계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수 있었다. 동일한 거주지와 이름에 사용된 같은 항렬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었다. 김수암과 김부암, 리남진과 리후진, 염화훈과 염금훈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sup>59)</sup> 한편,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주요 인물 중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박달은 박문상으로도 알려졌고 이 외에도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핵심 간부인 김철억과 리경봉은 각각 김성연과 리용술

---

59) 金正柱, 『惠山事件判決書: 韓國統治史料 第6卷』, 566, 569~570, 631쪽.

<표 1> 박달과 갑산파의 주요 인물

구분	성명	거주지(활동지역)	본적(本籍)	선고형량/기타	
갑산파	한인민족해방동맹	박달 (朴達)	함경남도 갑산군(甲山郡) 운흥면(雲興面)	함경북도 길주(吉州)	사형 (朴文淵)
		박금철 (朴金喆)	함경남도 갑산군(甲山郡) 운흥면(雲興面)	좌동(左同)	무기징역
		리송운 (李松雲)	함경남도 갑산군(甲山郡) 보천면(普天面)	함경북도 성진(城津)	10년형
		김왈룡 (金曰龍)	함경남도 갑산군(甲山郡) 보천면(普天面)	함경북도 길주(吉州)	10년형
		허학송 (許鶴松)	함경남도 갑산군(甲山郡) 보천면(普天面)	함경북도 성진(城津)	8년형
	허석선 (許錫先)	장백 지부에서 파견, 함경남도 원산부(元山附)	함경남도 단천(端川)	2.5년형 (許錫珍)	
	리효순 (李孝淳)	우동(右同)	함경북도 길주(吉州)	리제순(李悌淳) 의 兄	

자료: 金正柱 編, “惠山事件判決書,” 『朝鮮統治史料 第6卷』, 545~546, 559~560, 572~573쪽의 내용을 참조하고 허석선과 리효순의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표로 재구성함.

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였다.<sup>60)</sup>

<표 1>은 박금철, 리송운, 김왈룡, 허학송, 허석선, 리효순 등 갑산파를 나타낸 것이다. 당시 허석선은 허석진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금철은 갑산 출신인 반면 박달과 김왈룡은 함북 길주군, 리송운과 허학송은 길주군에서 갈라져나온 함북 성진군 출신이었다. 타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한인민족해방동맹 주요 조직원 가운데 함북 길주와 성진 출신이 1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sup>61)</sup> 박달은 함경북도 성진적

60) 위의 책, 561~562쪽.

61) 위의 책, 545~576쪽.

<표 2> 한인민족해방동맹 주요 조직원 거주지역

지역	거주 지역	명수	구성비	인물
갑산군 운흥면	운흥면 속신리	33명	31.7%	리경봉, 김철억 외
	운흥면 대상리	13명	13.4%	리남진, 안용준 외
	운흥면 대전坪리(大田坪理)	7명	6.7%	리호철 외
	운흥면 오산리	6명	5.8%	박금철, 허철 외
	운흥면 대하리	3명	2.9%	강석산, 신왕남 외
	운흥면 신흥리 운흥동	1명	1.0%	정용화
	운흥면 대오시천리	1명	1.0%	리용하
소 계		64명	62.5%	
갑산군 보천면	보천면 신흥리	10명	9.6%	심창식, 최병운 외
	보천면 보흥리(신흥동, 백채동)	8명	7.7%	김윤덕, 천길돌 외
	보천면 의화리	5명	4.8%	김왕룡, 리송운 외
	보천면 대평리 호암동	3명	2.9%	김종원, 최용철 외
	보천면 여수리	3명	2.9%	최길룡 외
	보천면 대흥리	3명	1.9%	김사남, 허학송 외
	보천면 대진坪리(大鎭坪理)	1명	1.0%	송상직
소 계		33명	30.8%	
갑산군 혜산읍 및 혜산리		4명	3.8%	김석태 외
불상/부정(不定)		1명	1.0%	박달
함북 길주, 함북 성진		2명	1.9%	리철돌, 김중갑
합 계		104명	100.0%	

자료: 김정주 편, “혜산사건판결서(惠山事件判決書),” 『朝鮮統治史料 第6卷』, 545~576쪽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함.

색농민조합사건으로 활동하였고 미검거된 상태에서 갑산으로 이주하였다.<sup>62)</sup> 박달은 신중하고 주도면밀한 성격으로 일제의 검거를 여러 번 모면할 수 있었고 혜산사건 관련자 가운데 최종적으로 체포되었다.

62) 『思想彙報』, 제18호(1934), 22쪽.

<표 2>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인민족해방동맹 주요 조직원들의 거주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함남 갑산군 중에서도 운흥면과 보천면을 기반으로 하여 하부조직을 구축해나갔다. 따라서 조직원 대부분은 운흥면과 보천면에 거주하였고 그중에서도 운흥면 속신리에 거주하는 비율이 단연 높았다. 박달은 거주지가 불명이었고 박금철은 운흥면 오산리에 거주하였다. 김월룡과 리송운은 보천면 의화리에 허학송은 보천면 대흥리에 거주하였다.

갑산군 운흥면에 거주하는 경우가 보천면에 거주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두 배 가량 많은 64명이었다. 그리고 전체 인원 중에서 30%가 넘는 인원들이 운흥면 속신리에 거주하였다. 특히, 속신리에서는 리경봉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조직원들이 여러 하부조직과 외곽단체를 결성하였다. 속신리는 조직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였고 리경봉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한편, 위 <표 2>에서 리철돌과 김중갑의 거주지역이 함북 길주와 함북 성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산군 운흥면 속신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리철돌은 항일청년동맹 덕산동 상촌지부에서 활동하였고 김중갑은 갑산군 운흥면에서 리경봉의 반일회에서 활동을 하였다. 이 두 사람이 정치공작원으로 함북 길주와 함북 성진에 파견되어 활동한 것으로는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결서 기재 착오로 인하여 리철돌과 김중갑의 연고 지역과 거주지역이 서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1>에서 박금철과 그의 처인 서채순이 한인민족해방동맹의 부녀조직에 직접 참여한 것을 나타낸다. 한인민족해방동맹 산하에는 박금철의 지도 아래 결성된 부녀회와 리경봉이 결성한 반일부녀그룹이 결성되었다. 박금철은 허창호와 심창선을 통해 부녀회 조직원에 대한 포섭과 의식교육을 실시하였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산하

<표 3> 한인민족해방동맹 주요 조직원 직업과 연령대

직업	명수	구성비	연령 (1937년)	명수	구성비
농업	88명	84.6%	35~39세	5명	4.8%
노동	6명	5.8%	30~34세	16명	15.4%
무직	2명	1.9%	소계(30대)	21명	20.2%
서당 교사	2명	1.9%	25~29세	52명	50.0%
벌부(땃목 하역부)	2명	1.9%	20~24세	25명	24.0%
목재상 겸 농업	1명	3.9%	소계(20대)	77명	74.0%
목재상 사무원	1명		15~19세	6명	5.8%
토기(土器) 판매상	1명		합계	104명	100.0%
학생	1명				
계	104명	100.0%			

주: <표 3>은 혜산사건으로 검거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인민족해방동맹 주요 조직원들의 직업과 연령대를 나타낸 것이다.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원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업이었고 연령대는 2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박달과 박금철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 대부분의 연령은 20대 후반이었다.

자료: 김정주 편, “혜산사건판결서(惠山事件判決書),” 『朝鮮統治史料 第6卷』, 545~576쪽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함.

조직으로 지역에 따른 조직화를 해나가면서 여러 개의 항일청년동맹과 부녀회와 같은 하부조직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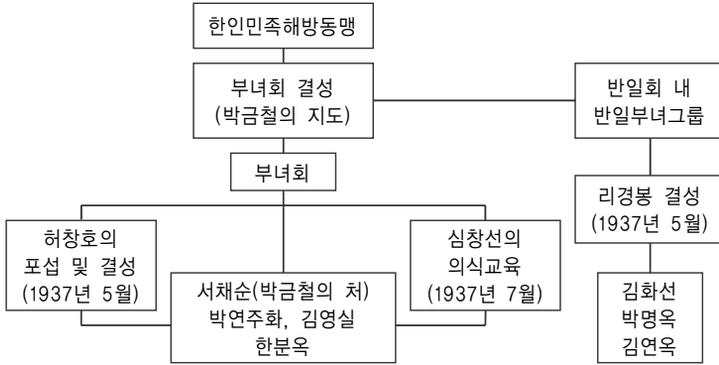
한편, 리경봉은 갑산군 운흥면 속신리를 중심으로 하여 반일회와 속신리 제4구 항일청년동맹, 덕산동 운동부 등 여러 하부조직을 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sup>63)</sup> 그의 여동생인 리금녀는 여성 조직원 가운데 유일하게 징역형에 포함된 인물이었다. 리용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 리금녀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sup>64)</sup>

박달과 박금철은 신규 조직원 포섭뿐만 아니라 여러 하부조직 결성을 주도하였다. 박달은 신규 조직원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와

63) 金正柱, 『惠山事件判決書: 韓國統治史料 第6卷』, 624~625, 628쪽.

64) 위의 책, 581, 683쪽.

<그림 1> 한인민족해방동맹 부녀조직



자료: 김정주 편, “혜산사건판결서(惠山事件判決書),” 『朝鮮統治史料 第6卷』, 622, 624쪽; 강덕상 편,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二), 抗日パルチザン』, 287쪽을 참조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동시에 심창식과 정용화에게 각각 보천면 백채동 상촌한인회와 신흥리 운흥동 아동대를 결성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보천면 대흥리에 리병선과 함께 여수평 반일청년동맹이 결성되도록 지도하였다.<sup>65)</sup> 박금철은 운흥면 오산리에서 리송운과 김주찬, 한윤득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충원하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원들을 포섭하도록 하였다.<sup>66)</sup> 또한, 박금철은 허철, 심창선, 한윤득 등 20여 명이 참여한 운흥면 반일회의 총책임을 맡은 것 외에도 자신의 지도 아래 보천면 의화리에 김월룡이 초평반일회를 결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운흥면 오산리에 자신을 총책임으로 하고 서영덕, 박계중, 박재택 등 6명의 조직원이 참여하는 반일그룹을 조직하였다. 갑산파의 핵심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리송운, 김월룡. 허학송은 박금철의 지휘 아래 보천보 전투

65) 위의 책, 645~647쪽.

66) 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二), 抗日パルチザン』, 287쪽.

에 참가하여 물자 획득과 방화를 담당하였다. 김월룡이 회장을 맡은 초평반일회는 박금철이 주관하여 제작하는 기관지 『화전민』을 배포하고 회독하며 의식교육을 진행하였다.<sup>67)</sup>

한편, 리효순과 그의 동생인 리제순은 함북 길주 출신으로 박문상으로도 알려진 박달과 고향이 같았다. 이들은 길주에서 갑산으로 이주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일성과 박달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준 인물은 리제순이었다. 리제순은 길주에서 갑산으로 이주한 후에 박달과 박금철과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다. 박금철, 리송운, 김월룡, 허학송은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을 하다가 혜산사건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허석선은 조국광복회 장백 지부와 국내 원산에서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2) 박금철과 갑산파 구성원

조국광복회 활동에 참여한 모든 인물이 갑산파로 지칭되지는 않는다. 또한,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도 갑산파 인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갑산파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며 갑산파 구성원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였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갑산파의 중심인물인 박금철과 갑산파 구성원의 관계와 더불어 그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갑산공작위원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조국광복회 활동에 참여한 인물<sup>68)</sup>이더라도 갑

---

67) 金正柱, 『惠山事件判決書: 韓國統治史料 第6卷』, 623~624, 635, 641~642, 657, 660~661쪽.

68) 이종석은 조국광복회와 관련된 인물을 설명하면서 갑산파 인물과 함께 사회안전성 부상을 지낸 리호철과 전 대사인 리덕현을 포함하여 조국광복회 출신들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리호철과 리덕현에 대해서 갑산파 일원으로 거

산파의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에 국한하여 갑산파로 지칭하고자 한다.

여러 문헌에서 유학과와 림춘추 등 갑산파에 동조했던 인물들과 더불어 조국광복회 관련 인물들을 갑산파의 범주에 함께 거론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한인민족해방동맹에서 형성한 관계에 의거하여 갑산파를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갑산파에 부분적으로 동조했던 림춘추나 혁명전통의 다원화를 시도했던 일부 유학과 등과 같은 세력들은 갑산파로 구분하지 않았다. 조국광복회 활동에 참여했던 세력 가운데 갑산공작위원회의 후신인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부 인물들이 갑산파의 주요 구성원인 것이다. 한편, 와다 하루키는 허석선에 대해서 김도만 당 선전선동부장과 박용국 국제부장, 고혁 내각 부수상 등과 같은 소련 유학파로 분류하고 있다.<sup>69)</sup>

리효순은 조국광복회 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리제순의 형으로 길주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이와 같이 갑산파 인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우선적으로 갑산 출신이거나 혹은 갑산을 연고로 한 인물로서 1930년대에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을 하면서 박금철과 특수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1965년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의 장례식에서 그 긴밀한 관계가 강한 응집력으로 표출되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 중반에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혁명전통의 다원화 시도와 관련하

---

론하고 있지는 않다. 이종석, “김일성의 ‘반종파투쟁’과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 『역사비평』, 제6호(1989), 266쪽.

69) 허석선이 소련 유학을 실제로 한 것인지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오류 내지 착오로 보인다. 와다 하루키, 남기정 역, 『와다 하루키의 북한 현대사』(서울: 창비, 2014), 163~164쪽.

여 1967년에 숙청의 대상자가 되었는데는 가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파에서도 조국광복회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있었다. 만주파 김일과 최현은 김일성의 지시로 조국광복회 장백현 지부 결성을 지도하였고 해방 후에는 만주파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였다. 특히, 김일은 김일성의 신임을 크게 받던 인물로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요직에 등용되며 최측근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갑산파로 간주되기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소련으로 유학을 가서 중앙당학교를 졸업한 김익선으로 1950년대에 최고재판소장과 국가검열위원장을 지냈다. 김익선이 갑산파로 비쳐질만한 점은 1930년대 초반에 적색농민조합운동과 조국광복회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인민족해방동맹과는 무관한 인물이었으며 갑산파로 분류될 만큼 박금철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중앙위 상무위원 서열 12위로 존재함을 나타냈었다. 따라서 갑산파는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정파라는 점에서 그를 갑산파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편의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조국광복회 활동을 한 인물이 갑산파 인물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익선의 초기 활동과 조국광복회 활동에 가담한 점, 그리고 1950년대 초반에 최고재판소장을 지냈고 박헌영 숙청에도 판사로 적극 참여한 점에 근거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김익선을 갑산파의 일원으로 간주하여 포함시키기도 하였다.<sup>70)</sup> 결론적으로 김익선은 갑산파의 특징, 다시 말해서 박금철과 구성원들 간에 맺어진 특수한 관계 형성이나 갑산파의 일원으로서의 동향(動向)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익선은 1967년 갑산파 숙청 이후에도 정치적 활동을 이어나

---

70) 위의 책, 121쪽.

갔다. 서동만은 김익선에 대해서 제3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71명의 당 중앙위원을 구분하면서 국내파(국내계)로 분류하고 있다.<sup>71)</sup> 한편, 김광운은 허국봉과 김익선, 리효순도 해산사건 관련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한인민족해방동맹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72)</sup>

갑산과 숙청이 1967년 2월에 박금철과 리효순이 김일성과 별인 언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증언을 한 신경완(필명)<sup>73)</sup>은 박금철과 리효순에 이어 김익선과 손만기, 리송운, 허학송 등을 열거하고 갑산과 인물들도 차례로 제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74)</sup> 그러나 손만기의 경우는 갑산파로 분류되지 않았던 인물이며 일부에서 갑산파로 인식하기도 한 김익선은 갑산과 숙청 후에도 건재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정확성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박병엽(신경완의 본명)은 허국봉, 김익선, 한상두, 송광철에 대해서도 갑산파에 포함된다고 증언<sup>75)</sup>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병엽이 해산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편의적으

---

7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550쪽.

72)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99쪽.

73) 신경완은 본명이 박병엽으로 1922년에 전남 무안에서 출생하여 1930년대에 함경도로 이주하였다. 해방 후에 평양에서 공청과 북로당 지도원을 거쳐 조선로동당 사회부와 대남연락부에서 근무하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에 서울에 왔으며 1998년에 사망하였다. 사망 전까지 신경완, 서용규, 황일호, 신평길, 최종민 등의 여러 가명을 사용하였다. 서동만, 김광운, 도진순이 박병엽의 증언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해서 유영구는 박병엽의 증언이 전부 사실이 아닐 수 있으나 역사적 기록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창현은 『김일성과 박현영 그리고 여운형』의 서문에서 박병엽의 출생지를 전남 강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울: 선인, 2010);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편, 『김일성과 박현영 그리고 여운형』(서울: 선인, 2010).

74) 신경완, “결에서 본 김정일,” 『월간중앙』, 6월호(1991), 398쪽.

75)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8쪽.

로 갑산파로 지칭한 것일 수도 있으나 갑산파 인물에 대한 그의 증언은 사실관계가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조국광복회 활동에 이어, 해방 후에도 활동을 했던 인물 가운데 박영발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적색노조와 야학 등 사상계몽운동을 하였고 조국광복회 회원이었다. 그는 휴전 후에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제2전선을 구축하다가 사망하였다.<sup>76)</sup> 조국광복회의 국내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해 인몰들도 있었다. 이 중에서 1990년대 후반에 인민군의 주요 직위에 있었던 인물에는 인민군 차수와 당중앙군사위원을 맡았던 리두익과 인민군 차수 김룡연 등이 있다.<sup>77)</sup> 리두익과 김룡연처럼 조국광복회 장백현 지부 활동을 거쳐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활동한 인물들 가운데 김성국, 전문욱, 조명선 등은 1980년대 이후에까지 군 요직에 머물렀던 인물들이다.<sup>78)</sup>

갑산파 인물들은 조국광복회 활동 시기부터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해방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박금철과 갑산파 구성원들은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었고 하나의 정파로서의 일체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갑산에서의 항일활동을 통한 강한 결속력이 해방 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었다. 따라서 연안파와 소련파가 보여준 것과 같은 갈등 표출이나 반목과 대립은 발생하지 않았다. 갑산파는 수적으로 월등한 연안파나 고려인으로 이루어진 소련파, 국내파 등과 비교해볼 때, 지도적 인물과 구성원의 관계에서 상당한 차이

---

76)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353쪽.

77) 위의 책, 525쪽.

78) 이종석, “북한지도집단과 항일무장투쟁,” 『해방 전후사의 인식 5』(서울: 한길사, 1989), 39쪽.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내분과 배반이 빈번했던 다른 정파와 달리, 갑산파는 조국광복회 활동을 거치며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박금철을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박금철과 리송운, 리효순의 활동은 1950년대 초반부터 매우 활발하였다. 1950년대에 박금철과 리효순은 당의 요직인 당간부부장을 공통적으로 거쳤다. 박금철은 리송운과 함께 1950년대 숙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당조직사업을 관장하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주요 직위인 당 연락부장 역할을 수행한 데 이어서 당간부부장과 당 조직지도부장 등을 거쳤다. 1955년부터는 조직을 담당하는 당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갑산파의 지도자로 뚜렷하게 각인되었다. 전시에는 당 관련 인사들도 인민군에 복무하였는데 박금철은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박헌영이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1년간량 근무하였다. 박금철은 박헌영의 실각을 비롯하여 박일우와 방호산을 심문하는 등 숙청에 관여하였다.

박금철을 비롯하여 갑산파는 1950년대 중반부터 부상하였다. 박금철은 1920년대 종파 활동과 관련이 있는 박헌영과 최창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종파의 청산을 강조하였다.<sup>79)</sup> 또한, 박금철은 박헌영과 리승엽, 박일우, 허가이, 최창익, 박창옥에 대해 반당 종파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들에 대해서 수정주의 이론과 구호를 앞세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부인한 반당세력으로 비판하고 특히, 1920년대 ‘엠엘파’에서 활동한 최창익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sup>80)</sup> 박금철은 1925년에 결성된 조선공산당이

---

79) 박금철,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당성 단련,” 『로동신문』, 1956년 2월 16일.

80) 박금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

1928년에 해산된 것은 대중과 함께하지 못했으며 소부르주아 인테리들의 동요와 파쟁이 원인이었다고 언급하고 종파를 극복한 과업이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여 실현되었다고 강조하였다.<sup>81)</sup> 박금철이 이러한 발언을 한 시점에는 이미 8월 종파사건과 관련한 인적 청산이 완료되고 김일성 직계세력을 포진시킨 단일 지배 체제가 구축된 시점이었다.

갑산파에 합류하여 핵심 인물로 활동한 리효순은 길주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고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도 가담하였다.<sup>82)</sup> 리효순과 리제순은 삼형제로 막내동생인 리범순은 남포당 활동에 이어 전쟁 당시 김일성의 명령으로 평양을 사수하다가 후퇴할 시기를 놓쳐 유엔군의 폭격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sup>83)</sup> 1907년 함경북도 길주 출생인 리효순은 1930년대 초에 함경북도 길주군의 적색농민조합, 이른바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운동에 참여하였다. 해방 후에는 1946년에 북조선노동당 길주군당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청진시당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1948년 제2차 대회에서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되었다. 함경북도 인민위원장과 자강도당 인민위원장에 오르며 정치적 이력을 쌓아나갔다.

리효순은 전후에 당 검열위원장과 국가검열상을 역임하며 자백운동과 ‘반탐오 반랑비’ 운동을 총괄<sup>84)</sup>한데 이어 1955년에는 당간부부

---

회에서 한 박금철 동지의 보고,” 『근로자』, 제3호(1958), 30~32쪽.

81) 박금철, “조선로동당 창건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근로자』, 제10호(1960), 3쪽.

82) 강인덕 편, 『북한전서』(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0), 892쪽.

83) 이정 박현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 박현영 전집』 제8권, 833쪽.

84) “전인민적으로 반탐오·반랑비투쟁을 강력히 조직·전개하자,” 『로동신문』, 1955년 9월 2일.

장에 발탁되었다.<sup>85)</sup> 그리고 역대 최고위급 출신으로 직업총동맹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8월 종파사건의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인 서휘의 잔존 영향력을 제거하였다. 리효순은 직업총동맹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제2차 대회 이후 12년만인 1959년 11월에 조선직업총동맹 제3차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직업총동맹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리효순은 직업총동맹의 역할에 대해 김일성의 주문대로 당에 무한히 충실한 당의 외곽단체로 임무를 다할 것과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직업 동맹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sup>86)</sup>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당부위원장에 오른 리효순은 국제사업과 대남업무를 담당하며 갑산과 내에서 박금철 다음가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66년에는 정치위원회 상무위원 및 노동당 비서국 대남 담당 비서에 임명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쳤다.

리송운은 1948년에 당 중앙위 위원에 박금철보다 바로 앞 순위에 선출되었다. 리송운은 최고재판소 검사총장으로 박헌영, 리승엽 재판에 관여하며 숙청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1960년대 초에 주소 북한대사를 역임하였고 1961년 10월에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을 수행하기도 하였다.<sup>87)</sup> 여러 요직을 거쳐 평양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리송운의 정치적 비중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리송운은 1956년 8월 전원회의를 상기시키며 최창익의 반당적 도발을 비판하면서 엠엘파의 주동 인물들의 획책이 8월 전원회의에서 폭로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sup>88)</sup> 리송운은 평양시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

8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504쪽.

86) 리효순, “사회주의건설의 양양기에 있어서 직업동맹의 과업,” 『근로자』, 제11호 (1959), 22쪽.

87)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한홍구 옮김(서울: 돌베개, 2015), 877쪽.

로 융성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뿐만 아니라 혁명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의 혁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당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89)</sup>

김왈룡은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으로 진출한 후, 리효순의 뒤를 이어 1961년부터 숙청 때까지 당의 외곽단체인 직업총동맹 위원장으로 있었다. 단체협약 철회 등 직업총동맹의 영향력 약화와 성격 변화가 나타난 시기에 직업총동맹을 이끌었다. 1960년대 초에 직맹의 역할은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하는 데 있어서 교양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양사업에는 항일빨치산의 혁명전통 교양이 강조되었고 이와 함께 군중 문화 사업은 직맹 단체의 최우선적인 역할로 정립되었다.<sup>90)</sup> 김왈룡은 전임자들에 비해 최장기간 직업총동맹 위원장직을 수행하였고 당의 외곽조직인 직맹 본연의 기능인 인전대 역할에 충실하였다. 김왈룡이 위원장으로 있던 1964년에 직맹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요구받는 한편, 생산력 향상과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받고 있었다.<sup>91)</sup> 또한, 김왈룡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직업동맹 단체들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92)</sup> 이 무렵 김일성은

---

88) 리송운, “8월 전원 회의와 당 대렬의 통일 단결,” 『근로자』, 제8호(1959), 19~20쪽.

89) 리송운, “나라의 살림살이와 일’군들의 혁명성,” 『근로자』, 제5호(1965), 30~33쪽.

90) 리중수, “사회주의 건설의 새 임무와 직맹 단체의 교양적 역할,” 『근로자』, 제1호(1962), 36~40쪽.

91) 박면, “당과 인전대,” 『근로자』, 제20호(1964), 44쪽.

92) 김왈룡,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직업 동맹의 역할,” 『근로자』, 제21호(1964), 2~5쪽.

직맹의 가장 큰 결함으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노동성과 같이 행정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었다.<sup>93)</sup>

허학송은 개성시당위원장과 황해남도당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제2기 최고인민회의부터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허학송은 산성화된 토지가 많은 황해남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 개량과 비료를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높일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었다.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기계화를 촉진하고 관개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한편, 종자 개량을 통해 식량 증산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sup>94)</sup> 한편, 허석선은 『로동신문』 주필과 기자협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제4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 중앙위원에 포함되었고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964년에 창설된 사회과학원의 초대 원장을 맡았다. 숙청 당시에는 당 과학교육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다. 숙청 전에 당의 교육과 관련하여 허석선은 김일성의 비판과 질책을 받았다. 허석선은 당의 사상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허석선의 활동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걸림돌이 되었다.

---

93) 김일성,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4년 6월 26일),”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31쪽.

94) 허학송,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제2호(1962), 33~35쪽.

#### 4. 결론

북한의 모든 파벌들이 이미 1950년대에 제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기존 파벌들의 성격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또 다른 정치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었다.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함남 갑산의 항일사회주의운동 세력이었다. 이들은 1930년대 중반 김일성과 연계된 조국광복회 활동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갑산파는 1950년대 반종파투쟁에 적극 가담하였고 1960년대 초부터 김일성 단일지배체제 아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김일성의 권력 강화를 위한 항일유격대 활동이 강조되는 가운데 갑산파는 자신들이 배제되는 항일무장투쟁의 유일성에 찬동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들은 김일성의 권력 확대 시도에 있어서 강력한 장애물이 되었다. 만주파와 함께 김일성 직계세력의 한 축이었던 박금철과 그의 추종 세력은 1967년에 불시에 숙청되었다.

갑산파는 박금철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세력이었다. 그리고 갑산파의 핵심구성원들은 1930년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에서 맺어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리효순과 허석선 역시 1930년대에 한만 국경지대에 연고가 있는 인물들로 박금철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갑산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조국광복회 활동을 했거나 함남 갑산과 연고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 박금철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갑산파의 범주를 확대하여 파악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인 분류에 따라 갑산파를 규정한 것은 갑산파의 성격과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인민족해방동맹 핵심 구성원들의 면면과 함께 조

직의 폐쇄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을 비롯하여 리송운, 김월룡, 허학송의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갑산파 인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고 갑산파의 범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갑산파가 다른 정파들과 차별화되는 특징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파벌들과 갑산파의 명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명하였다. 갑산파는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에 자부심이 있었다. 해방 후의 갑산파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김일성 직계세력으로 출발하여 김일성 단일지배체제의 한 축을 이루었으나 혁명전통의 유일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전격적으로 반당수정주의자로 내몰리며 제거되었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30일 / 채택: 4월 10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현 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김일성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_\_\_\_\_,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4년 6월 26일),”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인민군대는 공산주의 학교이다: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1960년 8월 25일),” 『김일성저작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세기와 더불어』,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리효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결 보고,” 『조선직업총동맹 제3차 전국대회 문헌집』(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59).

박금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보고,” 『조선로동당 제1차 당 대표자회 회의록』(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8).

직업동맹출판사, 『조선직업동맹 제3차 전국대회 문헌집』(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59).

#### 2) 논문

김시중, “지방주의와 가족주의의 해독성,” 『근로자』, 제4호(1958).

김월룡, “새 환경에 상응하게 직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로동자』, 제3호(1965).

김효선, “종파 여독의 철저한 근절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업,” 『근로자』, 제8호(1958).

리송운, “나라의 살림살이와 일군들의 혁명성,” 『근로자』, 제5호(1965).

- \_\_\_\_\_, “8월 전원회의와 당 대렬의 통일 단결,” 『근로자』, 제8호(1959).
- 리종수, “사회주의 건설의 새 임무와 직맹 단체의 교양적 역할,” 『근로자』, 제1호(1962).
- 리효순, “사회주의 건설의 양양기에 있어서 직업동맹의 과업,” 『근로자』, 제11호(1959).
- 박금철, “조선로동당 창건 15주년 기념 경축행사, 박금철의 보고,” 『근로자』, 제10호(1960).
- \_\_\_\_\_,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1차 당대표 자회에서 한 박금철 동지의 보고,” 『근로자』, 제3호(1958).
- 박면, “당과 인전대,” 『근로자』, 제20호(1964).
- 조두국, “백절불굴의 열렬한 공산주의자들: 리제순, 권영벽, 리동걸, 지태환 동지들의 서거 19주년에 제하여,” 『천리마』, 제3호(1964).
- 허학송, “알곡 5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제2호(1962).

### 3) 신문

- 박금철,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당성 단련,” 『로동신문』, 1956년 2월 16일.
- “전인민적운동으로 반탐오·반량비투쟁을 강력히 조직·전개하자,” 『로동신문』, 1955년 9월 2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 강인덕, 『북한전서』(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0).
-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서울: 선인, 2003).
- 란코브, 안드레이(Andrei Lankov),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김광린 옮김(서울: 오름, 1999).
- 백준기, “소련의 한반도 안정화 정책의 기원과 전개,” 서대숙 편,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1).

-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울: 선인, 2010).  
 \_\_\_\_\_,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서울: 선인, 2010).  
 백학순, “김일성의 권력 경쟁의 승리와 당·국가 건설,” 『북한의 정치 1』(서울: 경  
 인문화사, 2006).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_\_\_\_\_, 『북조선 연구』(서울: 창비, 2010).  
 스킨라피노, 로버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한홍구  
 옮김(서울: 돌베개, 2015).  
 심지연, 『허헌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4).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남기정 역,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서울: 창비,  
 2014).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 박헌영 전집』, 제8권(서울: 역사비평사,  
 2004).  
 이종석, “북한지도집단과 항일무장투쟁,” 『해방 전후사의 인식 5』(서울: 한길사,  
 1989).  
 전원근, 『조선노동당』(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 2) 논문

- 강석찬, “중국의 파벌투쟁과 외교정책노선의 변화”(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1).  
 기광서, “해방 후 김일성의 부상과 집권과정,” 『역사와 현실』, 제48호(2003).  
 김광운,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과 간부 층원: 1945.8~1947.3”(한양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성호, “민생단사건과 만주 조선인 빨치산들,” 『역사비평』, 제51호(2000).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백준기,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변동과 권력재편,” 『현대북한연구』, 제2  
 권 2호(1999).  
 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상일, “북한정치에 참여한 소련파 한인들,” 『동국역사교육』, 제5집(1997).  
 이종석, “김일성의 ‘반종파투쟁’과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 『역사비평』, 제6호  
 (1989).  
 전원근, “북한공산주의체제에 있어서 파벌의 형성과 소멸에 관한 연구”(경희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정병일, “북한의 초기국가건설과 연안과 역할: 역사의 재조명”(서강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2).

### 3) 기타 자료

신경완, “결에서 본 김정일,” 『월간중앙』, 6월호(1991).

## 3. 국외 자료 및 일제 관련 자료

### 1) 단행본

Armstrong, Charles,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 ~1950*(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Rankov, Andrei,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 ~  
 1960*(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Suh, Dae-Sook,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梶村秀樹·姜徳相 編著, 『現代史資料 29 朝鮮 5』(東京: みすず書房, 1972).

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二), 抗日パルチザン』(東京: みすず書  
 房, 1976).

金正柱 編, 『惠山事件判決書: 朝鮮統治史料 第6卷』(東京: 韓國史料研究所, 1970).

### 2) 논문

Person, James F.,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52(August 2006).

Paik, Hak-Soon,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Ph. D. dissertation,  
Pennsylvania University, 1993.

### 3) 일제 관련 자료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科, “在滿朝鮮人の概況,” 『高等外事月報』 제2호(1939).

\_\_\_\_\_, “國境警備の狀況” 『高等外事月報』 제4호(1939).

朝鮮總督府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37年(昭和12年度)における朝鮮内思想運動の  
概況,” 『思想彙報』 제14호(1938).

\_\_\_\_\_, “1938年(昭和13年度)における朝鮮内思想運動の概況,” 『思想彙報』 제18호  
(1939).

\_\_\_\_\_, “咸鏡南道國境地帶思想淨化工作概況,” 『思想彙報』 제20호(1939).

## A Study on the *Kapsanpa* in North Korea: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k Geum-Cheol and the Members

Cho, Woo-Chan(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t existed several factions in North Korea, after independence of Korea, 1945. *Manjupa*, anti-japanese partisan force of Kim Il Sung didn't have absolute power in the beginning part of North Korean government. Several factions was dividing the political power in the beginning part of North Korea regime. At that time, there was the *Yonanpa*(China related faction) who was conducted anti-Japanese activity with China communist party, and the *Sorionpa*(Soviet related faction) who was consisted of Soviets Korean, and the *Kuknepa*(domestic faction) who was composed of northern communists, and Pak Hon-Yong's Namrodang(South Korea labor party). On the other hand, Kim Il Sung criticized publicly *Yonanpa*, *Irkuztskpa*(Soviet related Irkutsk faction, *Sorionpa*), *Ohgisubpa*(Oh Gi-Sub faction, domestic faction), *Pakhonyongpa*(Pak Hon-Yong

faction, Namrodang) and they was purged in 1950's.

The anti-Japanese activity force of Pak Geum-Cheol emerged new Kim Il Sung direct group in 1950's. But they didn't actively advocate for Kim Il Sung's uniqueness for anti-Japanese armed struggle. They differentiate from other factions. The leadership of Pak Geum-Cheol is robust like Kim Il Sung, and connectedness of the *Kapsanpa* was very solid. In this respect, the *Kapsanpa* was very different other fa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o is *Kapsanpa*, what is relationship between Pak Geum-Cheol and his follower. Also, it is to research into naming for *Kapsanpa*. Until now, the factions of North Korea has called diversely. Also, from the beginning, it didn't called the *Kapsanpa* for Pak Geum-Cheol and his force. It began naming them after 1967.

Keywords: *Kapsanpa*, Pak Geum-Cheol, Independence Association of the Fatherland,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faction of North Korea